

계양구, 동양체육문화센터

개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월 10일 동양체육문화센터 신축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계양구 양지로 60(동양동)에 위치한 동양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2,970.6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 1층 주차장 ▲1층 탁구장·체력단련장·GX룸 ▲2층 다목적체육실(농구장 겸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공간이다. 구는 센터를 통해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건강·여가 활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동양체육문화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주민의 건강한 일상과 소통을 있는 생활체육 거점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월부터는 GX 프로그램을 포함해 정식 운영에 들어가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체력단련장 1,500원 ▲배드민턴 평일 1,000원·주말 1,500원 ▲탁구장 평일 700원·주말 1,200원이다. GX 프로그램은 필라테스, 요가, 줌바, K-POP댄스, 시니어댄스 등 총 9개 종목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양체육문화센터(☎556-7330)로 문의하면 된다.

계양구, ‘2026년 올해의 책’

선정 구민 선호도 조사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2026년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구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양구 올해의 책 후보도서는 독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총 35권의 도서를 추천받아 교육·독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9권이 선정됐다.

성인 분야는 ▲제철행복(김신지 작가) ▲시 절한시(이지운 작가) ▲오춘실의 사계절(김효선 작가), 청소년 분야는 ▲네임 스티커(황보나 작가) ▲뽀뽀, 넉기(박찬희 작가) ▲오늘 받은 스웨이 넘칠거야(강경수 작가), 어린이 분야는 ▲검은 여우를 키우는 소년(신동섭 작가) ▲달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오(임고을 작가) ▲황금가면 미술사의 비밀(고재현 작가)이다.

선호도 조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주민패널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계양구립도서관을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계양구 올해의 책’ 사업은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으며, 최종 선정 도서는 작가와의 만남, 독서 릴레이, 독서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28년 3월 개원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2028년 3월 개원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 위상 강화, 해양·국제사건 전문 사법서비스 길 열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

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

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체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 ‘청렴 실천 버킷챌린지’ 추진

남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6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버킷챌린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캠페인은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금품·선물 수수 등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의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버킷챌린지’는 구청장을 시작으로 부구청장,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전 직원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관장 주도의 청렴 리더십을 기반으로 간부 공무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부서

단위 확산을 통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실천형 청렴 운동으로 운영된다.

참여 사진은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간 공감과 참여를 독려하고, ‘좋아요’ 응원 참여를 통해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위해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이 일상에서 청렴 가치를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부평구 애인(愛仁)소통

지하도사가 활성화 및 캠프마켓 부지 활용 주민편의시설 조성 요청



부평구는 12일 유정복 인천시장장이 부평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시정 정책을 공유하는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인천시와 부평구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는 인천시장 및 시 관계자들과 함께한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다양한 구 현안 사항을 언급하며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먼저 부평지하도사가가 부평역 인근 상권과 연계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후 시설정비(노후 CCTV 정비 및 출입구 시설개선·3억5천만원) ▲인천시설공단 역할 강화(지하도사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등) ▲공실 상가를 활용한 지하도사가 공간 재설계 등을 건의했다.

또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전까지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주민편의시설 조성도 언급했다.

구는 ▲캠프마켓 A구역 부지에 대한 유희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 토지 무상사용 협의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13억원) ▲캠프마켓 D구역 일부 지역에

임시주차장(150면) 조성(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등을 건의했다. 또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과 부영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D구역 가운데 오염되지 않은 일부 구간 개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 ▲마분·부광정로당 내진 보강 공사 ▲전통시장 CCTV 통합 연계 사업 ▲혁신센터 조성 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이어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린 생생톡톡 애인소통 행사에서는 2026년도 인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시장이 직접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이 시간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은 지금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로운 미래와 더 큰 부평을 위한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시가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신규 임용(예정) 교사 612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 진행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1일부터 이틀간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신규 임용(예정) 교사 612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시가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교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교사들이 인천 교육 핵심 정책을 이해

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강연에서 “AI가 답하는 시대에 배움의 능동성과 기술을 결합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며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인천교육의 미래이자 리더로서 모든 학생의 성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강연을 들으며 AI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며 “인천교육의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AI주도 시대에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심하린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①—5.5.④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